

환자와 의사의 관계

김 유 영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의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즉, 의학은 인간의 생(生), 노(老), 병(病), 사(死) 중에 일어나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로부터 인간을 총체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그 사명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의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의학의 대상인 인간은 적어도 세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첫째, 신체를 갖고 있는 생명체요. 둘째, 의식이 있는 정신적 존재이며 셋째, 사회적 공동체 속의 한 개체이다. 따라서 의학은 생명현상을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논리적 이론을 갖고 있는 생명과학이며, 동시에 사고하고 고뇌하는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치료를 그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기술을 요하는 응용과학이며, 나아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질병예방과 건강 유지 및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과학이다.

의료관계에 있어서 환자는 의사에 대해 불평등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환자와 의사가 의료관계에서 평등하지 않은 이유는 의사는 치료를 베푸는 공여자의 위치에 있고, 환자는 치료를 받는 수혜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의사는 전문가로서 절대적인 권한

을 갖고 있는 반면에 환자는 의사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질병의 치료자임과 동시에 환자 마음의 반려자가 되어야 하며 의사는 환자를 그 인간 전체로서 파악하여야 한다. 의사의 임무는 그 환자의 인간성을 자연과학자가 하듯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철학자가 하듯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의사란 그 환자를 고통에서 구원하는 실천적 행위자인 것이다.

법적으로 현재의 의료행위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되나 의료행위는 계약관계 이전에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질병의 치료는 의사의 진료행위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질병치료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의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환자 자신이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을 때 사회가 환자의 생존권리를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